*강좌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나'를 읽다, 듣다, 느끼다, 어루만지다, 함께 쓰다

「지구와 사람과 시詩와 '나'와」

'나'를 열고 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시적 상태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한 편의 시를 완성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날 내게로 온 것을 놓치지 않고 그날 쓰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학습'이 아니라 '마음의 율동'을 따라서 자연스레 함께 쓰는 시간이 되기를.

- 황혜경

황혜경의 시들은 사방에서 찢기고 시도 때도 없이 독립체로 회귀한다.
그의 말들이 토막 나고 마는 사태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손쉬운 상징과 타협하지 않고, 그걸 감당하지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었을 것인가? 그 의지로 황혜경은 삶과 시와 정신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자신과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적대성의 늪을 통과해온 것이다.
그러니 또한 그가 스스로 낸 길을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갈지 자못 기대되지 않는가?

-시집『느낌 氏가 오고 있다』해설 중에서

황혜경은 쓴다. '쓰다'의 자의식은 아마도 황혜경의 시들을 떠받치는 가장 큰 동력일 것이다. 이러한 자의식을 통해 시인은 나의 삶과 언어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려는 질서 정연한 언어의 사슬을 헤치고 힘겹게 더듬더듬 시인의 내면에 깃든 개별자의 언어들을 향해 나아간다.
시인은 소통이 아닌 독백에, 맥락이 아닌 오차에, 단 하나의 언어가 아닌 모두가 주인공인 나의 몸들, 그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언어들 위에 위태롭게 서 있으려 한다.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씌어지고 씌어지고 또 씌어진 언어들이 인간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황혜경의 시들은 이러한 자각을 전경화하는 지점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시집『나는 적극적으로 과거가 된다』해설 중에서

1.‘나’와 ‘나’와 ‘나’와_ ‘나’를 말하는 시간 (개강파티)

강좌에 모인 회원들과 첫인사. 서로에게 묻고 답하다.

‘나’와 ‘나’와 ‘나’들이 모였다. 놀면서 모임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2.램브란트의 ‘자화상’_최승자의 ‘자화상’_윤동주의 ‘자화상’

23세~57세의 램브란트까지. 100여 편이 넘는 자화상을 그린 램브란트의 그림 속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빛과 어둠을 통한 응시. ‘사람’에 집중한 램브란트와 함께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어둠과 빛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아와 벌이는 투쟁에 대하여.

***거울로 나를 바라보며 쓰는 시: 눈, 응시, 눈빛에 담긴 내가 아는 나, 나만 아는 나.**

3. 색감(色感)으로 쓰는 시

_산문「목소리의 색감」을 읽고 색의 느낌들, 각자의 ‘색’에 대하여.

색에서 발상을 시작한, 색이 번지는, 시 읽고 쓰기.

(‘파란 나라’, ‘난시(亂視)의 골목, 별 총총 변주 형태를 포함한 데생’, ‘동(東)’, ‘맹(盟)’, ‘담장 아래 붉은 담요를 깔고’, ‘검은 외투를 하나 갖는 일’, ‘희뿌옇다’, ‘채색의 저편’, ‘그것을 주홍이라 부를까’)

4. ‘있다’와 ‘있었다’_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두 번이란 없다’

_산문「떠났는데 떠나지 않았다. 않는다」를 함께 읽고 기억과 망각에 대하여.

시간의 속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어떤 망각은 생존에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시의 재료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의 쓸모에 대하여.

***있다. 있었다. 없다. 없었다._존재와 부재, 소유와 상실 관련 ‘나’의 단어 5개.**

단어 5개를 갖고 5문장으로, 5행시 쓰기

5. 우주적 친화의 세계_ 오규원 시인의 동시집『나무 속의 자동차』

_동심(童心)으로 동시(童詩) 읽기. 현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내면화하여 그려내는 감수성에 대하여. 사물과 현실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투시력.

무생물인 돌멩이에까지 닿아 있는 시인의 염려와 배려의 자세가 소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들. 자연을 대하는 그 마음. 모든 개별자들은 내밀하고 유기적인 관련 속에 있다.

오규원: 저는 동시를 동심을 노래하는 것으로도, 동심으로 노래하는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동시를 동심으로 볼 수 있는 시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물: 깃털, 돌멩이_ 조금 더 정갈해진 천진한 상상력으로 쓰기.**

6. Duet 白日場 (듀엣 백일장)_자연 속으로 함께 걸어요. (소풍)

_5강에서 만난 자연의 언어를 직접 만나러 야외로 나갑니다.

나무와 새와 바람과 물과 햇빛과 하늘과 그늘과 꽃과 돌멩이와 길이 전하는 말.

(자연과 함께 '침묵의 백일장') 자연 속에서 걷고, 감각하며 둘이 1편의 시를 완성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쓰다:** 기억 속의 사람(생명체)도 가능합니다. 또는 오늘 자연 속에서 만난 ( )과 함께 쓰기.

7.'나'에게 적용하는 직유(直喩)_나는 ( ) 같다, 듯이, 처럼.

_'나'와 연결할 수 있는 것, 기억에서 비유할 '사물' 꺼내어 쓰기.

산문「가고 있는 동안에」,「매니큐어」를 읽어봅니다. (자동차, 엄마에 대한 기억)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물이나 감정, 상태, 정황을 정하고 그것에 빗대어서 시를 쓰거나 '기억에서' 꺼낸 사물에 깃든 시간을 다시 마주하며 쓰기.**

8. 시와 공간: 공간이 '나'를 통해 쓰게 하는 '것'

_산문「글썽 여왕이 있는 미용실」을 읽어봅니다. 어떤 '공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거기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나'의 '것'들. '무엇'이 시작되는 장소, 곳에 대하여.

_'이리 오너라!'를 외치며 열고 싶은 대문, 하늘이 보이는 마당의 천장. 각자 다른 시간을 살다가 한 곳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발들. 과거의 숲에 서 있었을 유재의 많은 나무기둥들. '자리'를 마련해주는 의자. 마루의 방석, 유재라는 '곳'은 지구와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잇고 이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의 세밀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유재(留齋)'라는 공간에서, 곳곳을 배회하며 떠오르는 '것'으로 쓰기.**

9. 죽은 시인들 ( ), ( ), ( ), ( )와 함께 쓰다!

_그들이 오래 전에 쓴 문장을 하나씩 나눠 갖고 그것을 포함한 오늘의 '창작시'

각각의 시인들의 시에서 뽑은 문장이 적힌 색종이를 하나씩 선택하고, 그 문장에서 시작된 나만의 느낌을 전개하여 시로 완성합니다. 한 시인의 같은 시에서 발췌한 다른 행을 나눠 가진 사람은 같은 시의 다른 행으로 각각 어떤 시를 쓰게 될까요?

***죽은 시인과 함께 쓴 작품 발표 + 죽은 시인들의 작품을 공개하고 읽기**

10.「지구와 사람과 시詩와 '나'와」 낭독회 (종강파티)

그동안 완성한 작품들 중에, 언어의 육체와 목소리의 색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한 편씩 낭독합니다.